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로 95 101호 대표전화: 061)654-8885 팩스: 070)8220-8808

www.ysibtv.co.kr

2021년 5월 3일(음력 3월 22일) 월요일 / 제101호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3~9일까지 사적모임 6명까지…전남 맞춤형 특별 방역대책도 시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위 개편안은 전라남도 전 지역에 5. 3.(월) ~ 5. 9.(일)까지 적용됩니다.	
모임·행사	중점관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5.3.(월)부터 5.9.(일)까지 7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 이용시설에 7명 이상 예약 및 동반인장 금지 방역수칙 준수 모임 행사 가능 단, 300명 초과 시 자제 신고·협의 집회·시위·대규모 모임·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 인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시설 5종, 출렁댐 · 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 작성 불가) ·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방문객 등 직접판매·판매점·온라인판매점 등 ·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등 · 식당, 카페: 2인 이상의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제규고)
일반·기타관리시설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 (수기·명부 작성 불가) · 결혼식장: 청탁금지장, 오락실 등 ·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험)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전체 착용 - (실험) 2m 이상 거리 유지 불가, 다중이 모일 때 등 착용 · 정기예배·미사·법회·사일식 등 · 착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전라남도는 3일 0시부터 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와 협의의 히어 뛰어지는 이번 시범 적용은 전남도내 22개 전 시군이 동시에 참여한다. 전남도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하루 평균 670명을 웃도는 상황에도 인구 10만 명 당 환자 발생률이 5647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중면체마법 맞춤형 판세 전수감사로 전체 도민의 62%인 114만5천 건의 전단검사를 실시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날까지 전체 도민의 10%가 넘는 19만9천256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 전국 인구 대비 65.6%보다 높은 예방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안정적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 도민들의 일상 속 불편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지난 4월 초부터 중앙재난·안전대처체계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게 됐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에서 6명까지, 행사 가능인원은 500명에서 300명까지, 시설면적 당 이용인원은 4㎡당 1명에서 6㎡당 1명까지 확대된다.

사적모임은 광주 인접지역 시군 등 모든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8명이 아닌 6명까지 가능해졌다.

개편안 시범 적용에 맞춰 전남 맞춤형 특별방역 대책도 추진한다.

티자역으로부터 지역간의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운영, 광주 인근 시군과 주요 관광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모임은 최대한 자제하고 전화로 일부 물어 캠페인 등도 추진키로 했다.

또 나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세탁·드라이, 시자출입금지, 접щит시간·시차제를 확대하고, 회사모임도 자체도록 하는 한편 나주 혁신도시 내에 일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공공부문 방역을 강화한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특별기동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시범 적용기간 동안 확진자수, 백신 접종률 등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개편안 연장 및 8명까지 사적모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노인·여러분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여러분께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개편안 시범 적용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록 기자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131주년 세계노동절 전남대회" 개최해

해고금지, 총고용보장! 불평등 체제 타파!
사회대전환 총파업 성사!

올해 5월 1일 제131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였다.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8시간 노동을 외치는 노동자들에게 기여한 힘과 저항의 역사는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노동자, 노동자 투쟁의 지표가 됐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올해도 해마다 세계 노동절을 기념하며 그해 노동의 의제와 사회대개혁의 요구를 모아 전국동지들로부터 제131주년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을 대변하고 있다”며,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되는 위기의 진전은 결국 우리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그 정점에 있는 이민수십의 기여자들과 이들의 이의을 거치는데 충실히 정권을 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불평등 구조를 깨기 위한 투쟁은 선포하는 장으로 이번 노동절 행사와 투쟁을 계획하였으며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많은 제약이 있지만 현재 달된 투쟁을 위한 직선신고를 미친 상황에서 경찰의 제한통고가 있었다고 전하며, 코로나 19 감염병을 범위로 과도하게 낙관되는 집회, 시위의 자유 및 기본권의 침해를 거부하는 동시에 안전한 대회가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MG is with you
Meet MG, Be the star



여수한려새마을금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쑥쑥!”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최대 1.5%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중앙로 30-55(삼일중학교 앞) 문의전화 061-684-2511

여수시, 2021년 아이돌봄미 양성교육생 모집

2021년 여수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미 양성교육생”모집
서류접수 5월6일(목)~5월7일(금) 이틀간 접수

2021 여수시 아이돌봄미 활동가 모집

여수시 건강기증단문화가족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에서는 말羸아 부부 및 자녀들을 위하여 광장에 풀을 전문가를 끄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참여해 “아이돌봄미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양성교육자 (여수시가주하는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회망자)
모집인원	10명
면접 일정	서류접수 : 05.06(목)~05.07(금) 1차面接 : 05.10(월) 개별방문 2차面接 : 05.12(수) 면접교과 : 06.17(금)~06.30(수)
접수 방법	면접교과수행 가능 여수시 시민포털 33

- 아이돌봄미 신청서 및 자가소개서 1부
- 주민등록증 복사본(2면짜리)
- 아이돌봄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직증명 및 미필증 등 필요하여 경우) 1부
- 본인 자격 증명 1부 (보육교사, 교육교사, 종교교사, 간호사)
- 경력증명서 제3자증명(경력증명증명서 혹은 교육증명서)

문의 :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61-692-4175-6)

여수시 건강기증, 다문화기족,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일기정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아이돌봄미 양성교육생 10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고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활동 회망자로서 양성교육 이후 최소 1년 이상 활동이 가능하거나, 휴·폐업하는 영세사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무직기구 및 저소득 여성가장을 우선 우대해 선발한다. 서류접수는 5월 6일부터 7일까지(9:00~18:00, 접수시간 12:00~13:00, 29일간) 여수시 건강기증, 다문화기족,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신기동)에서 서류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아이돌봄 지원사업팀(☎692-4175-6)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송정현 미용장의 머리카락 이야기 //

“고투리 잡다”

탈모로 고민이 많은 요즘 세대에 술 많이서 불면이라는 고객을 만났다. 웬 말인가? 술 많은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디... 남의 땀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단은 이럴 때 쓰는 거구!

커 보이는 남의 땀을 마시며 막내보면 내 땀이 훨씬 많았다는 걸 깨닫는 건 경험에 의한 것인데 내 것 아닌 남의 것을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레이터카락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내려다보기 위대함(?)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남의 것과 절대 비교가 할 수 없기에 고기의 비음을 지불하면서 고급스러운 헤어 스타일로 청정거리에 승정현 미용장 폐기도하고 말총마리를 우아하고 레깅스 하게 웨이브를 주기도 하고 깨끗한 머리카락을 노랗거나 뺨같게 원한다면 무지개색으로 컬러 커이지를 하거나 베이블을 깨끗하게 멋스러운 애쉬나 그레이운 변화를 주면서 내 것 아닌 다른 것을 경험하는 미용실이, 세로운 변화와 기분전환을 선사하는 미용실이 얼마나 근사한가?

술 많은 일정한 머리카락에 괜한 고투리를 짊는 고객 덕분에 별이가 생각해본 머리카락의 경체성이 있다. 수많은 고객을 만났지만 자신의 머리카락에 만족하는 분이 거의 없었다. 남의 땀이 커 보이는 슬기는 걸 깨닫는 모든 부스스한 꾹습마리가 불로이었던 나역시 자연스런 웨이브를 매만지며 감사드린다.



승정현 미용장



TRAVEL
(유)금오관광 여행사 렌터카



대표전화
1666-7478

- 항공권발권
- 비자발급대행
- 공항전문수송
- 패키지여행
- 렌터카

실력있는 원어민강사와 함께하는 행복하고 알찬 외국어 연수!

‘원어민 영어 강사 수업 관찰 및 평가 진행’



전라남도국제교육원(원장 고미영)은 지난 27일(화)부터 원내 고용된 원어민외국어강사 8명(영어 7명 및 중국어 1명) 대상으로 ‘원어민강사 수업 관찰 및 평가’를 진행한다.

앞으로 5월 14일(금)까지 진행되는 이번 원어민강사 수업 관찰 및 평가는 전라남도국제교육원에서 고용한 8명의 원어민강사들이 6개월 심화연수를 비롯한 각종 외국어와 교사 연수와 세계시민 학생 캠프 그리고 여수시민대상 외국어회화 교육 등에 투입되는 만큼 연수 및 교육 관련 교수 능력 향양과 함께 특화된 주제 관련 연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8일(수)에 원어민영어강사 Danielle의 6개월 심화연수생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영어 쓰기 평가’ 수업에는 담당 교육연구사를 비롯한 6명의 원어민강사들이 참석하여 보다 나은 수업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토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에 원어민영어강사 Danielle은 수업 후 협의회에서 “이렇게 내 수업을 다른 동료에게 공개하여 평가받을 수 있어서 앞으로 내 수업 능력 향상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라남도국제교육원에서는 6개월 심화연수가 전 إنه되지 않는 올해 하반기에 ‘원어민강사와 함께하는 생활방법 수업개선 원격 직무연수’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운영되는 다양한 주제별 외국어와 연수를 설계하면서 이번에 진행하는 수업 관찰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원내 8명의 원어민 강사들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알차게 진행할 계획이다.

송선기자

최무경 도의원, “한센인 100년 한(恨) 품다”

과거 철조망에 갇혔던 여수 도성마을 등 한센인 정착마을 정주여건 개선



▲ 최무경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 더불어민주당)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 속에 소외된 삶을 살며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던 한센인 정착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정비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한센인 정착마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마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센인 피해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한센인의 날 행사,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주



택의 기량, 슬레이트 처리 사업, 노후위험시설 보수, 상하수도 개량,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했다.

현재 전남도에는 1920년대부터 조성된 여수 도성마을 등 한센인 정착마을 8곳에 한센인 236명을 포함한 주민 7백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수십 년째 방치된 낡은 주거시설과 축산 폐수, 약취 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무경 의원은 “그동안 정착마을 주민들은 한센인이라는 이



유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지속적인 차별과 소외로 고립받아왔다”며, “과거 사회적 편견 속에 소외된 삶을 살았던 한센인 정착마을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된 만큼 한센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평소 한센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도정질문을 통해 여수 도성마을 등 정착마을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해 전남도 치원의 협의회, T/F팀 구성 등을 이끌어 냈다.

김영주 기자

Design
의 모든 것!



중앙그래픽

전남 여수시 새터로 15 (롯데첨단사택 정문앞)

061)684-6050 061)684-6788

010-4623-6050

6636050@hanmail.net

선거홍보물 전문

각종 인쇄 · 족보
책자편집 전문 · 모든 인쇄물
개업답례품 · 행사용품 납품 · 현수막